

책 읽는 상하이 ㉞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

김갑수의 살아있는 날의 클래식

김갑수 | 오픈하우스 | 2014년 8월



‘이것은 책이다. 묵묵한 활자와 종이의 살결뿐. 그러나 소리가 들리는 책을 쓰고 싶었다. 먼 추억과 어제오늘의 경험이 동원된 이야기들. 그것이 이 책 속의 음악이다. 어쩌면 선율과 선율의 틈새에 잠깐씩 삶이 개입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 책을 읽어 음악이 느껴지는 상태를 소망한다.’ - 서문 중에서

위낙 오타쿠적 마니아라서 뭘 해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은 김갑수씨는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오디오, 커피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그의 오타쿠적 기질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락이 있다.

1-11, 100년 전을 그리워하며 줄라이홀 오디오는 주로 1930~40년대산 극장 장비들인데 19세기 푸조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아 그 시절 러시아나 아라비아를 떠돌던 사모바르에 보글보글 끓이며 유성기 복각 음반으로 미샤 엘만이 연주하는 프리츠 크라이슬러 곡을 독일산 ED나 데카 데폴라 PX25 진공관에 올리면 아, 나는 떠나갑니다.

막 떠나갑니다. 어디로?

어쩌면 이 책은 여기 흐르는 정취를 같이 즐길 수 있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질, 저자와 마찬가지로 오타쿠적인 책인지도 모르겠으나, 서문에서 저자가 소망한 바와 같이 언어를 통해 음악을 느끼는 경험은 충분히 멋졌다. 한 번에 완독하려는 부담감 없이 각 단락에 소개된 음반들, 연주자별로 비교해 보면서 천천히 평생 두고 읽는다 생각해도 좋은 책.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최근에 들은 마우리치오 풀리니(1942~ 이탈리아)가 연주한 쇼팽 음반(2017, DG) 때문이다. 보통 다른 일을 할 때 클래식 음악 틀어 놓고 하는 편인데 사실 그러면 온전한 음악감상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김갑수 씨는 ‘어떤 청자도 한 가로이 만칭 부리지 못하게 하는 연주가 있다!’ 고 한다. 맞다. 일순간 다른 것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연주들이 있는데 이번 풀리니 음반이 그렇다. 음반 가게 직원이 다른 손님에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음반이라고 극찬을 하며 소리를 들려주는데 트랙 1번 녹턴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극찬에 나도 동감.

외국에 살다 보니 필요한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책버룩시 장방이 위챗에 동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화요일마다 책 소개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문화의 소비자로서만 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해 교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SHAMP 2월 추천도서

상해교통대MBA와 한양대가 운영하는 SHAMP에서 중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경영과 중국>이라는 테마로 매월 도서를 선정, 추천하고 있다.

채사장 | 웨일북



인문 분야 국내 작가는 드물게 200만 부라는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작가 채사장이 5년 만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신작으로 돌아왔다. 작가 특유의 유머와 필력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지루한 것을 재미있게 정리하는 기술은 여전하다.

현대인은 여러 블랙미러를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지식과 접한다. 지식의 종류는 많지만, 어떤 지식을 알려면 꼭 필요한 선(先)지식이 있다. 이것은 나와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개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형성해주며, 일상에서 파생되는 지식들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 책 [제로]편은 당신이 진정한 지적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접해야 하는 가장 근본 지식을 담았다. 독자는 ‘모든 지식의 시작’부터 다루는 이 책을 통과하며 비로소 ‘모든 지식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

브라운스톤 | 오픈마인드

이 책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회원들의 ‘성지순례’로 명성 높은 브라운스톤의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을 담고 있다. 그는 500만 원으

0



로 50억 원을 만든 실전 투자자가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전망이 마치 예언처럼 딱딱 들어맞는 것은 자신이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앉아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로지 ‘투자’를 핵심에 둔 인문학적 탐구가 ‘돈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다. 성공한 실전 투자자가 필터링한 인문학은 투자 안내서로서 손색이 없다.

에이미 웹 | 채인택 역 | 토트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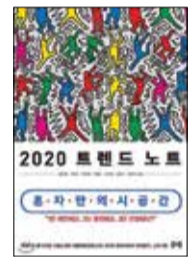


AI는 이미 재정·금융 시스템과 전력망 그리고 유통 공급 체인의 중추를 차지했다. 우리가 교통 체증 속을 빠져나가도록 알려 주고, 잘못된 입력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 주며, 무엇을 사고, 보고 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미래학자 에이미 웹은 실제 데이터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링한 3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펼쳐 보이며 AI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한다. 3개의 시나리오는 9개의 테크 타이탄, 즉 미국

의 G-MAFIA(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IBM, 애플) 그리고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패권전쟁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상을 보여준다. 웹이 들려주는 2029년, 2049년, 2069년 시나리오는 인류의 삶을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AI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한다.

2020

연한결, 이원희 외 | 북스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한국 사회를 내다본다! 2013년 ‘혼밥’이 처음 등장한 이래 ‘혼술’, ‘혼영’ 등 ‘혼라이프’를 세부적으로 지칭하는 신조어가 어느덧 40여가지를 헤아린다. 다음 소프트웨어의 생활변화관측소는 매월 1억 2000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에서 1,000여 개의 키워드를 도출해 변화상을 관찰하고, 이를 7개의 인사이트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 메시지들이 모여서 그려내는 한국사회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아 모이고 흩어지는 ‘혼자만의 시공간’으로 압축된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만의 시공간을 윤곽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나의 비즈니스는 이러한 ‘혼자 사회’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友励中国语
우리중국어학원

우리중국어에서는 다양한
1대1수업이 가능합니다!



쑹~쑹~ 올리는 중국어 실력!

개강

2월 3일(월)

매일	아침반	07:00-08:00	비즈니스&회화
	오전반	09:20-12:30	생활용어
월수금	오전반	11:00-12:30	입문하
		08:20-09:20	듣기기초
	오전반	09:20-10:50	생활용어·기초문법·드라마
		11:00-12:30	뉴스·신문반/생활회화

화목	오전반	09:20-10:50	생활회화/향상문법
		11:00-12:30	신개념회화/습관용어
월수금	오후반	13:30-15:30	HSK반
	저녁반	17:00-20:00	초·중·고등생반
주말반		09:00-12:30	HSK4,6급/초등생반/비즈니스반
		13:00-16:00	HSK 5급

“엄마 중국어가 재밌어졌어요!”

현명한 학부모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립니다!